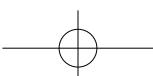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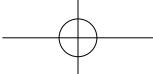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 ■ 아이가 직접 한 것만 아이 것이 된다

교사나 부모로서 나는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아이 대신 생각해 주고, 아이 대신 판단해 주고, 아이 대신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이 대신 생각해 주고, 판단해 주고, 결정해 주고, 행동해 주는 방식으로 기르고 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콩을 심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어려서 부터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만이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아이의 손을 턱 치면서 “안 돼!”라고 못하게 한다. 아이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해도 아이에게 못하게 한다. 하지만 아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작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에서 아이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뜨겁거나 더러운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뜨거운 것을 만져 손에 그 느낌과 위험을 직접 경험한 아이는 강렬한 배움을 얻는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부모가 그런 것을 만지라고 해도 만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의 행동과 판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실패하는 경험에 대해 부모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아이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기 때문이다. 아이는 말을 통해, 잔소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 본보기를 통해 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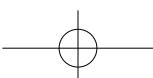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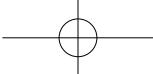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다. 아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고 그것에 책임지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아이는 성장한 후에 큰 실패가 닥쳤을 때 이겨내기가 어렵다.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지 못한다. 아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아이 일에 끼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신 해 준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아니라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는 좌절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어떤 좌절이 왔을 때 자신의 목표나 꿈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그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 특히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일이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 대신 판단해 주고 결정해 주면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최근에는 우리 삶의 문화가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인간성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졌다. 아이가 맡은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부모들 또한 크게 줄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 화내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켜봐주거나 대안 제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부모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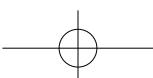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눈에는 어려 보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단지 위험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열 살 정도의 아이는 얼마든지 집안 청소를 도울 수 있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방을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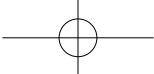
아이에게 책임감을 기르고,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며,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기르려면 무엇보다도 아이가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하는 아이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예견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아이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난, 도전에 스스로 맞서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기 동기와 내면의 힘을 기를 기회를 얻기 어렵다. 아이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기르려면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따르는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아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에 주인의식을 느끼게 된다.

## ■ 놀면서 수다 떠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사람은 즐거운 것을 할 때 자기 동기가 생기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진다. 즐거운 것을 해야 뇌도 좋아한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은 무엇일까? 바로 놀이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놀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싼 교재 교구가 있어야만 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에게는 플래시카드나 책보다 흙이나 모





래가 더 좋은 교재이자 교구  
일 수 있다. 부모가 아이와  
집에 있을 때 아이의 사고력  
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  
단하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  
는 것을 아이와 함께 즐기면  
된다. 어린아이들은 좋아하  
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한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 그 관심 분야부터 시작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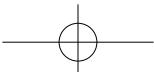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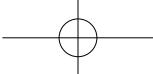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부모와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 잔디밭에서 둥굴고 뛰면서 부모와 함께 놀이를 즐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작은 수족관을 만 들어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면서 직접 물고기를 관찰하게 한다. 물고기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아이에게 읽어 주면서 그림을 보고 대화한다. 또한 물고기 그림을 자주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비디오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의 사고를 자극한다. 물고기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민물고기, 바다 물고기, 물고기의 종류, 생김새, 색깔, 사는 곳 등으로 얼마든지 아이의 관심을 넓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에게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고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가 원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시키면 된다. 아이가 싫어하면 왜 싫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한다. 싫어한다는 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없애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에게 숫자를 알게 하고, 글을 빨리 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안정감을 주는 것, 세상이란 참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고 공부하라’고 한다.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한다. 하지만 떠든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놀이를 통해 배운다. 외우는 지식은 이제 핸드폰 하나면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넓히고,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 훨씬 잘 길러진다.

